

문서번호 : 천인2024-1210-02

수 신 : 서울동부구치소장

참 조 :

발 신 : (사)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비상계엄 당시 조치에 관한 질의

날 짜 : 2024년 12월 10일(화)

문 의 :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02-777-0641, 010-6344-5808)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사)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수용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입니다.
3. 2024년 12월 6일 <JTBC>는 교정시설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하여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4분 대통령의 비상 계엄 발표 직후 간부들이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회의가 이어졌으며 △4일 새벽 1시 자택에 있는 교도관들에게 비상 소집 지시가 내려왔고 △모인 교도관들에게 독방이 필요하니 독거 수용자들을 혼거로 모으는 등 최대한 빈 방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며 △같은 날 새벽 4시경 작업 시작 두어 시간 만에 비상 소집이 해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붙임. [JTBC] "이유도 없이 '빈 방 만들라' 지시" 계엄의 밤, 동부구치소에선).
4.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파렴치한 중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1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포고했습니다.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 2분경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고, 오전 4시 30분경 국무회의는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습니다.

5. 계엄법 제8조 제1항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제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법 제14조 제2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이에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 아 래 -

- 1) 비상계엄 발령 당시 귀 기관의 간부들이 회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의의 목적과 안건, 결정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 비상계엄 발령 당시 귀 기관은 자택에 있는 교도관들에게 비상 소집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비상 소집의 이유 및 소집에 응한 교도관의 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 귀 기관은 교도관들에게 독방이 필요하니 독거 수용자들을 혼거로 모으는 등 최대한 빈 방을 만들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위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구금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까?
- 4) 귀 기관은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나 계엄사령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간부 회의 △교도관 비상 소집 △빈 방 확보 등을 시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5) 귀 기관이 평소 수립해 둔 비상계엄 대비 계획에 △간부 회의 △교도관 비상 소집 △빈 방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6) 귀 기관은 위 <JTBC>에 증언한 교정시설 관계자가 소속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사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위 질의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을 2024년 12월 17일(화)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JTBC] "이유도 없이 '빈 방 만들라' 지시" 계엄의 밤, 동부구치소에선, 2024년 12월 6일자.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계엄령 후폭풍...정국 '대혼돈' | 비상계엄 후폭풍 | 대통령 탄핵소추안 | 주요국·외신 반응

사회

"이유도 없이 '빈 방 만들라' 지시" 계엄의 밤, 동부구치소에선

🕒 1분 입력 2024.12.06 19:36 수정 2024.12.06 19:48

 박창규 기자

제보



속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 국민배우 전원주 曰 "건강 활력 비결! 000때문"
- 羅姓 "박기브저 굿기" "이거" 집에서 5분만에 "하제"

AD

- 70代남성! 부부관계 매일 "2시간" 비결이..충격!

[앵커]

뿐만 아니라 계엄이 선포된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교도관 비상 소집이 있었다는 증언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갑자기 불러 독방이 필요하니 최대한 빈 방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런 일이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일 밤 서울 동부구치소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오후 9시 사동 불이 꺼졌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선 TV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후 10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발표했습니다.

간부들이 구치소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자정 넘어 4일 새벽 1시.

자택에 있는 교도관들에게 비상 소집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교정시설 관계자 :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직위 순서대로, 자택이 구치소와 가까운 거리 순으로 연락망이 돌았습니다.

모인 교도관들에게 내려진 임무는 "방을 비워라"였습니다.

[교정시설 관계자 : 방을 비우라는 건 지금 과밀 수용이잖아요. 독거 수용자들을 혼거(단체 수감방)으로 몰든지...]

한 밤 중 독방이 필요하니 최대한 빈 방을 만들라는 지시.

이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독방 수감자를 여러 명 방으로 옮기거나 독방에 2명을 넣는 식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위험 수감자나 범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선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교정 시설 다른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들어오면 카메라 달린 독방에 들어간다. 뉴스를 보고 짐작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새벽 4시.

작업 시작 두어 시간 만에 비상 소집이 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 빈방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린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도 없고 답변할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정수임]

+++

※ 알려왔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 4일 새벽 전국 기관장들 화상 회의와 5급이상 비상 대기는 있었지만 비상 소집은 없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또 동부구치소에 방을 마련하라는 지시 및 계획도 없었으며, 동부 구치소 자체적으로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후폭풍

한국로또, 12월부터 전국민에 1억원씩 준다

AD

리스 부부들.. 러브젤 사용후 매일밤 후끈..

강남 논현동 신축 아파트, 선착순 반값 분양 시작..

신차 구매 시, 최대 400만원까지 준다..충격!

20대 간호사, 병실에서 눈 맞아 할아버지와 결혼..

한국로또, 12월부터 전국민에 1억원씩 준다

"성기능" 망치는 "전립선 비대증" 빨리 병원가야..

"72억 로또1등" 된 女교사, 당첨금 받고 3일만에..

백만원 코인해 10일만에 "20억"번 30대女 알고보니..



박창규 기자

park.changkyu@j...

+ 구독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좋아요 1

👎 싫어요 0

댓글 2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최신순 | 추천순

이***** 2024.12.07 09:09:47

⋮

꼼꼼하게? 도 준비중이었구나... 윤씨글과 내란공모자들 방인듯

답글

👍 2

양***** 2024.12.06 20:16:23

⋮

뒹어놓고 아니라 하면 없던 일이 되나? 뻘뻘하긴..

답글

👍 53

추천 정보

AD

뉴스속보, '장어' 먹으면 정력 떨어진다..충격!

식물인간도 텐트치게 만드는 천연 정력제..충격!

20대 간호사, 병실에서 눈 맞아 할아버지와 결혼..

한국로또, 12월부터 전국민에 1억원씩 준다



20대 간호사, 병실에서 눈 맞
아 할아버지와 결혼..



상도역 초역세권 아파트, 선택
순 로또 분양!



20대 간호사, 병실에서 눈 맞
아 할아버지와 결혼..

ADVERTISEMENT